

2024. 7. 24.(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보존과장	홍우석	02-2133-2610
문화유산진흥팀장	권중석	02-2133-2638
관련 누리집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a href="https://yeyak.seoul.go.kr/">https://yeyak.seoul.go.kr/</a>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 올해 8.15광복절 타종식, 시민 500명의 노래로 가득 채운다

- 8.15.(목) 11시 30분 부터 보신각에서 제79회 <광복절 타종식> 개최
- ‘묻는다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를 주제로 공연·체험 행사 등 개최
- 독립유공자 후손 등 시민 500여 명 참여하는 ‘대합창단의 무대 선보여·‘광복절 노래 함께 불러
- 광복절 오전, ‘종로구 내 항일유적 탐방 프로그램’, ‘퀴즈행사’ 등 시민 참여행사도 운영

- 서울시는 오는 8월 15일(목)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광복절 타종식 <묻는다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를 개최한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타종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행사 등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계획이다.
- 특히 올해 타종행사는 더 많은 시민들이 보신각 현장에 모여 광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500여 명의 ‘시민 대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서울시 구립여성연합합창단·브릴란테어린이합창단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전 모집한 일반 시민, 독립유공자 후손 등 현장에서 총 500여 명에 이르는 시민이 타종행사에 참여하여 광복의 기쁨과 서울의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한다.

- 이번 광복절 타종식에 참여하는 ‘시민 대합창단’ 500인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광복절 노래’와 ‘서울의 찬가’를 함께 부르며 아름다운 노래로 보신각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 광복절 노래(정인보 작사, 윤용하 작곡)는 1950년에 만들어진 노래로 광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힘과 희망을 담고 있다.
  - 서울의 찬가(길옥윤 작사·작곡)는 1969년에 만들어진 노래로 서울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수 패티김이 불러 유명해졌다.
  
- 한편 광복절 오전에는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종로를 도보로 답사하는 <광복절 맞이 서울해치와 떠나는 항일유적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이 참여 가능하다.
  - 3.1운동의 시작점인 ‘탑골공원’에서, 가슴 벅찬 광복을 맞이했던 ‘보신각’까지 종로 일대의 주요 항일운동 유적지를 직접 걸어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은 ▲항일운동 유적지탐방(1시간 30분) ▲타종행사 관람(1시간)으로 구성되며, 활동지·퀴즈 풀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7월 24일(수) 9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 : [yeyak.seoul.go.kr](http://yeyak.seoul.go.kr)
  
- 이회승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제79년 광복절 타종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모여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며 “순국선열의 애국 정신을 미래세대로 잇는 뜻깊은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1. 타종의 유래
2. 광복절 타종행사 관련 사진
3. '시민 대합창단' 합창 선곡. 끝.

## 타 종 의 유 래

조선초기인 태조5년(1396년)부터 도성의 4대문(송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과 4소문(혜화문, 소덕문, 광희문, 창의문)을 일제히 여닫기 위해 종을 쳐왔는데 새벽에 치는 종을 『파루』라고 했으며, 저녁종을 『인정』이라고 하였음

※ 보신각이란 명칭은 고종32년(1895년)부터 불려 졌으며, 흔히 종루(鐘樓)로 불렸음.

### □ 파루(罷漏)- 33번 타종(새벽)

- 오경삼점(五更三點)인 오전 4시경에 33번을 타종하여 통금을 해제하고, 도성8문을 열어 그날의 활동을 시작하였음
-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33天으로 분신하는데, 이에 따라 33번을 타종하게 됨

### □ 인정(人定)- 28번 타종(저녁)

- 밤 10시경에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 28번 타종하고, 도성의 문을 일제히 닫음
- 고대 천체를 동, 서, 남, 북의 4궁으로 가르고, 각궁을 다시 7등분한 28區(또는 28수)내의 별자리 수에 따라 28번을 타종한 것임

※ 人定은 우주의 일월성신 28수(宿)에 고하는 것이고, 罷漏는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33천(天)에 고하여 그날의 국태민안을 기원한 것으로 불교와 관계가 있음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타종)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기념촬영)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기념촬영)



항일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 광복절 노래

○ 작사/작곡 : 정인보 / 윤용하

○ 가사

- (1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 (2절)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 서울의 찬가

○ 작사/작곡 : 길윤옥

○ 가사

- (1절)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 (2절)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 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